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3>
희랑 조사 (希朗祖師, 889~956)

고려 태조가 복전으로 삼았던 인물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희랑 조사의 목조상. 가슴 한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다.

화엄종 중흥시킨 대표 인물 고려 태조·가야산서 큰 신앙 대중의 정진 위해 모기에 보시 가슴의 큰 구멍 지금도 남아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고려 태조가 전쟁의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갈 정도로 영향력은 강력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그렇다면 희랑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당시의 해인사는 사우(寺宇)의 단장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힘을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필자는 그 부분을 민중과의 유대 강화라는 부분에서 찾는다.

남종선이 전래된 이후, 신라 하대의 화엄종은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첫째로 신라하대의 화엄종은 사상의 연구에 힘을 기울였던 것과는 달리 화엄신행의 간소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가야산해인사고적'에도 나타나는 희랑의 화엄신중 신앙이 그 일례이다. 방대한 <화엄경> 전체가 아니라 <화엄경>에 등장하는 신중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지송하는 형태의 신앙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등장하는 <화엄신중경>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당시 희랑을 중심으로 하는 해인사의 화엄종 세력이 엘리트 중심의 교학불교에서 벗어나 민중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적 방법을 모색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단하게는 '화엄성중'을 염송하

는 형태이니, 민중들로서는 훨씬 더 쉽게 화엄의 위신력에 기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이 시기의 화엄종은 조사신앙을 내세우면서 내부적인 결속강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희랑 조사가 주지하던 당시에 해인사에 머물렀던 최치원은 화엄종단 내부의 결사문을 여러 차례 짓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화엄종 세력이 선종의 성행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상황에서 화엄종단 내부의 결속을 강하게 다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혼란한 시대에 자연스럽게 민중과 유대를 강화했던 해인사의 화엄종 세력은 그 과정에서 민중의 열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희랑 조사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혁련정이 쓴 <균여전>에는 "옛날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는 두 분의 화엄사종(華嚴司宗)이 계셨다. 한 분은 관해공인데 후백제 견훤의 복전이 되었고, 한 분은 희랑공인데 태조대왕의 복전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신심을 받아 향화를 올리며 서원을 맺었으나, 서원이 이미 달라졌으니 어찌 주장이 같겠는가. 문도들에게 내려가면서 점차 물과 불처럼 구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인사의 대표적인 두 스님에게 견훤과 고려 태조가 각기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인데, 그만큼 해인사가 이 지역세력 및 민중들과 강하게 밀착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 광종대의 균여 스님은 이 중에서 복약되었던 희랑 조사의 법손이었지만, 균여의 사상 역시 민중 지향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 사상의 원천을 희랑 조사에게서도 볼 수 있다.

해인사에는 중창조사인 희랑 조사의 목조상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인 몸에 흰 바탕에 붉은 색과 녹색 점이 있는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다시 녹색 띠가 있는 가사를 걸친 모습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슴 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해인사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스님들이 정진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희랑 조사가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들에게 피를 보시했다고 한다. 이에 해인사의 모든 모기가 희랑 조사에게 모여들어서 다른 스님들은 편안히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희랑 조사의 사상과 신앙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일화로 생각된다.

당시 해인사에 머물면서 희랑 조사와 깊이 교류했던 최치원은, 스님의 뛰어난 <화엄경> 강의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조사를 교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후삼국의 난세를 읽고 미래를 예기했다고 전해지는 최치원 같은 석학이 단순히 강의의 뛰어난만으로 찬사를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찬사의 이면에는 신앙의 실질을 추구하는 자비의 실천행이 당연히 전제됐을 것이다.

고려 태조는 후백제를 복속시킨 직후에 오늘날의 논산시 연산면에 화엄종 사찰인 개태사를 창건하여 후백제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역시 단순히 화엄종의 공을 치하한다는 의미보다는 복속한 후백제의 백성을 포용하는데 당시의 화엄종만한 것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희랑 스님이 추구했던 신행의 한 편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0



정토종의 개조 호넨 상인 (法然上人 ⑧)

호넨(法然; 1133~1212)은 헤이안 말기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다. 그의 40대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관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 카마쿠라(鎌倉)에 무사정권의 근거지로 막부를 세웠다.

왕권은 실추되고, 일본 최초로 무사들이 실권을 갖게 된 이른바 막부정치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정적으로 밝아진 양 시대를 살다간 호넨은 민중의 고난과 도탄의 장면을 여실히 목격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가 출가하게 된 배경도 또한 이러한 시대의 격동과 무관하지 않다. 9살 때, 그의 아버지 우르마노 토키쿠니(漆間國國)가 장원을 감독하는 관리의 습격을 받아 상처를 입고 죽음에 통을 줄 것이다. 너의 아들 또한 적의

"너는 적에게 보복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전생의 숙업이다. 나의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 크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나의 상처의 고통과 아픔에 의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야 한다. 네가 적을 증오하고 죽인다면 적의 아들 또한 너에게 칼로써 고통을 줄 것이다. 너의 아들 또한 적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겐신(源信)의 <왕생요점>을 읽고, 비로소 말세에는 왕생극락을 향한 정토사상이야말로 중생구제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다른 여타의 행을 버리고 오로지 염불만을 주장하는 전수염불(專修念佛)에 귀의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

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



호넨 상인 초상, 교토부 나가오카교시(京都府 長岡京市) 소재 광명사(光明寺)

그의 학문에 대한 열의는 대단해서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법상종은 물론 삼론종, 화엄종 등의 교학을 배웠다.

이렇듯 호넨은 천태종을 비롯한 제종을 두루 섭렵했는데 그 중에서도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선도(善導)의 저서를 읽고 당시 중국의 정토교를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세(塵世)로부터의 출리(出離)의 길을 알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겐신(源信)의 <왕생요점>을 읽고, 비로소 말세에는 왕생극락을 향한 정토사상이야말로 중생구제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다른 여타의 행을 버리고 오로지 염불만을 주장하는 전수염불(專修念佛)에 귀의하기에 이른다.

드디어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

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

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175년 정토종을 개창하고, 포교를 위해 교토 히가시야마(東山)의 기슭인 오오타니(大谷)로 거처를 옮겼다. 이때부터 당시 정계의 인물들에게 정토법문을 설하고, 교토 북동부 출가자들의 은둔지인 오하라(大原)나 나라(奈良)의 대찰인 동대사에서는 정토삼부경인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을 강설했다. 하지만 그의 정토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동시에 기존 교단의 반발도 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멩석 카페트

오직~ 현물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원산지: 한국

■ 삼베 멩석 카페트
크기: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가격: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용도(공용): 요거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물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